

# 가정간호학회지 게재 논문 분석: 2010년부터 2019년까지 가정간호분야를 중심으로

전 은 영<sup>1)</sup> · 노 준 희<sup>2)</sup>

## 서 론

### 연구의 필요성

가정간호는 수요자 중심의 보건의료 공급구조의 변화와 함께 만성질환 및 노인인구 증가로 인한 의료비 절감과 제한된 의료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1]. 수요자 중심의 가정간호는 환자의 가정으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로 의료 이용의 편의성뿐만 아니라 환자 요구에 맞는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대상자의 만족도가 높고 의료의 질 또한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2] 가정간호에 대한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간호연구는 질적이면서도 비용효과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과학적 지식의 개발과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3]. 초창기 가정간호 연구는 가정간호에 대한 요구도를 파악하는 것에서 시작되어 수가 산정이나 표준화된 프로토콜 개발 등 실제적인 측면에서 진행되었다[4]. 이후 가정간호의 주요 관리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질, 재정과 정보, 서비스와 인적자원 관리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5,6], 최근에는 가정간호와 방문간호,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등 다양한 실무현장의 복잡한 요구에 따른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가정간호학회지는 1993년 1월 한국가정간호학회가 발족된 후 가정간호분야의 학문적 발전을 위해 당해연도 12월에 창간호를 발행하여 2000년도까지 매년 한 호씩 발간해 왔으며, 2001년 의료기관의 가정간호사업 확대에 가정간호관련 연구가 활발해

짐에 따라 발간횟수를 연 2회로 늘려 양적으로도 성장하게 되었다. 2011년도에는 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지로 선정되어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 성장을 하였다. 특히, 2016년도에는 가정간호분야를 연구하는 학회지로서 우수성을 인정받아 등재지로 선정되었고, 2017년도부터는 발간횟수가 연 3회로 증가되어 가정간호분야 뿐만 아니라 방문간호,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주제를 게재하는 학회지 발전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

간호학의 학문적 정체성과 독립성을 보여주며 새로운 지식체를 개발하고 확장시켜나가기 위해서는 연구의 전반적인 경향을 파악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는데[7,8], 연구논문 분석은 연구의 전반적인 추세를 확인하고, 축적된 지식체의 경향에 따라 연구 내용의 고찰, 주제나 이론에 대한 결과를 통합하는 등 다양한 방법들로 분석이 가능하다[9]. 연구 주제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최근 의료 보건 분야의 연구에서는 근거에 기반한 실무와 연구를 강조하는 경향으로 근거기반 연구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3]. 특히 가정간호는 환자의 가정에서 독자적인 치료적 행위와 간호업무를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1] 연구를 통한 지식체 확립과 간호 실무 적용을 통해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다.

국내 여러 간호학회에서는 학회지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고 향상시킬 수 있는 노력으로 주기적인 학술지 게재논문 분석을 통해 간호 연구 및 지식체 발달의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10]. 하지만 가정간호학회지는 학회지 발간 이후 게재된 논문에 대한 분석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가정간호 연구에 대

### 주요어 : 가정간호, 간호연구, 동향

1) 대전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https://orcid.org/0000-0002-8955-8689>)

2) 우석대학교 간호대학, 부교수(교신저자 E-mail: [junhee0802@woosuk.ac.kr](mailto:junhee0802@woosuk.ac.kr)) (<https://orcid.org/0000-0001-6763-3310>)

투고일: 2020년 8월 8일 수정일: 2020년 8월 14일 게재확정일: 2020년 8월 15일

한 분석도 2000년도에 시행된 논문 한 편[4] 밖에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정간호학회의 최신 연구 동향을 분석하는 것은 가정간호분야 연구의 연구방법, 주요어 등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연구자들이 불필요한 반복연구를 피할 수 있으며[11], 선행연구를 토대로 질적으로 우수한 후속연구가 진행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근거기반의 연구를 통하여 간호연구 및 실무의 질적 향상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3] 학회지의 최신 연구 동향을 분석하는 것은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난 10년간 가정간호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중 가정간호분야의 논문을 중심으로 연구동향을 분석하여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가정간호 실무에 적합한 지식체 구축을 위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학회지의 질 관리와 함께 가정간호학회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 연구 목적

본 연구는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10년간 가정간호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을 분석하여 가정간호학회의 최근 연구 동향을 파악하며 향후 전문학술지로서 양적,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발전 전략을 수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선정된 연구 논문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한다.
- 선정된 연구 논문을 연구방법론적 특성에 따라 분석한다.
- 선정된 연구 논문의 주요어를 분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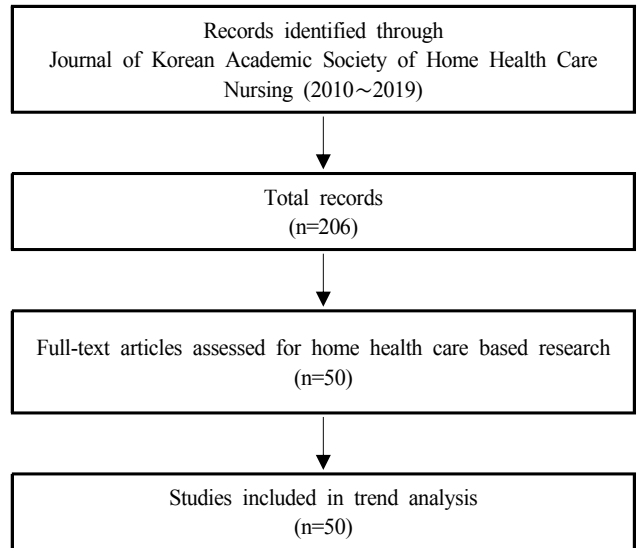
### 연구 방법

####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최근 10년간 가정간호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을 분석하여 연구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 연구 대상

본 연구는 2010년 17권 1호부터 2019년 26권 3호까지 최근 10년간 가정간호학회지에 게재된 총 206편의 논문을 전수 조사하였다. 가정간호학회의 목적과 범위는 가정 및 방문간호를 주제로 하는 연구 분야를 다루고 있으며, 의료기관중심의 가정간호 및 보건소 중심의 방문간호와 관련된 실무, 교육, 정책 및 미래의 변화 등의 주제를 포함하는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12]. 따라서 분석 시 ‘가정간호’, ‘가정간호사업소’, ‘가정간호서비스’, ‘가정전문간호사’, ‘방문간호’, ‘방문간호사’, ‘요양시설’, ‘장기요양’, ‘재가간호’ 등의 연구제목, 내용과 주요어를 중심으로



〈Figure 1〉 Study flow diagram.

로 연구주제를 선정한 50편의 논문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Figure 1).

### 연구 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연구도구는 연구동향을 파악함에 있어 일관성을 갖기 위해 연구자들이 연구동향을 분석한 선행연구 [3,8,11,13]에서 사용한 분석기준들을 선별하여 도출된 자료조사틀을 사용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연구의 일반적 특성, 연구방법에 대한 분석, 논문의 주요어 분석, 이론 및 개념 분석이 진행되었던 것을 근거로 하여 본 연구에서의 분석내용을 연구의 일반적 특성, 연구방법에 대한 분석, 논문의 주요어 분석의 세 부분으로 구성하였다. 구체적인 분석 내용으로는 연구자 특성, 연구대상자, 연구장소, 연구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 심의 여부 등 연구의 일반적 특성, 연구 유형과 연구설계,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등을 포함한 연구방법에 대한 분석과 논문의 주요어를 분석하였다. 또한 연구 방향성 설정, 분석내용 확인, 분석 코딩 형식 확인 등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3번의 토의를 거쳐 연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 자료 수집 및 분석

가정간호학회지에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10년간 게재된 모든 논문을 2명의 연구자들이 학회지 사이트에서 각 논문의 내용을 검토하고 토의를 거쳐 50편의 논문을 선정하였다. 그 뒤 결정된 연구분석 코딩 형식에 따라 엑셀 프로그램에 입력하였다. 또한 1차 입력된 자료는 2명의 연구자가 교차점검을 통해

여 도출된 결과가 일치하는지 재확인하였다. 연구논문의 정량적 분석을 위해 엑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분석인 빈도 및 백분율, 평균 등으로 분석하였다.

양’, ‘재가간호’, 등의 연구제목, 내용과 주요어를 사용한 연구는 50편으로 확인되었다. 게재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0년 6편, 2011년 5편, 2012년 4편, 2013년 4편, 2014년 4편, 2015년 4편, 2016년 7편, 2017년 6편, 2018년 3편, 2019년 7편이었다.

## 연구 결과

### 연도별 연구 편수

가정간호학회지에 2010년부터 2019년까지 게재된 논문을 조사한 결과, ‘가정간호’, ‘가정간호사업소’, ‘가정간호서비스’, ‘가정전문간호사’, ‘방문간호’, ‘방문간호사’, ‘요양시설’, ‘장기요

### 연구의 일반적 특성

연구의 일반적 특성은 연구자, 연구대상, 연구장소, IRB 승인 여부, 연구비 지원 여부에 따라서 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연구자의 소속과 직종은 연구자 중 제 1저자와 교신저자만을 분석하였고, 제 1저자와 교신저자가 동일한 경우는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tudies in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Home Health Care Nursing from 2010 to 2019 (N=50)

Variables	Categories	n (%)		
Types of authors' affiliations (First author)	Clinical institute	18 (36.0)		
	University or research institute	32 (64.0)		
Types of authors' affiliations (Corresponding author)	Clinical institute	4 (8.0)		
	University or research institute	46 (92.0)		
Number of authors	1	5 (10.0)	Mean: 2.5 Range: 1~6	
	2	26 (52.0)		
	3~4	17 (34.0)		
	5~6	2 (4.0)		
Title of author (First author)	Nurse	16 (32.0)		
	Professor	27 (54.0)		
	Graduate student	5 (10.0)		
	Others	2 (4.0)		
Title of author (Corresponding author)	Nurse	5 (10.0)		
	Professor	41 (82.0)		
	Graduate student	3 (6.0)		
	Others	2 (4.0)		
Research participants <sup>†</sup>	Ill patients	13 (26.0)		
	Healthy persons	1 (2.0)		
	Health care provider	Nurse	26 (52.0)	
		Others	5 (10.0)	
		Family	9 (18.0)	
Research setting	Visiting health center	3 (6.0)		
	Public health center	10 (20.0)		
	Elderly care facility	7 (14.0)		
	Hospital	3 (6.0)		
	Home care agencies	13 (26.0)		
	Home	14 (28.0)		
Institutional review board approval	Yes	31 (62.0)		
	No	19 (38.0)		
Funding	Yes	10 (20.0)		
	No	40 (80.0)		
Master's thesis or dissertation	Yes	11 (22.0)		
	No	39 (78.0)		

<sup>†</sup>Multiple responses.

둘 다 표기하여 분석하였다. 연구자의 소속은 제 1저자는 대학이 32편(64.0%), 교신저자도 대학이 46편(92.0%)로 가장 많았다. 연구자의 수는 2명이 26편(52.0%)으로 가장 많았고, 3~4명은 17편(34.0%), 단독은 5편(10.0%)이었고, 5~6명이 2편(4.0%)이었다. 연구자의 수는 최대 6명이었고, 평균 2.5명이었다. 각 연구의 제 1저자는 교수 27편(54.0%), 간호사 16편(32.0%), 대학원생 5편(10.0%), 연구원 등 기타 2편(4.0%) 순이었다. 교신저자는 교수 41편(82.0%), 간호사 5편(10.0%), 대학원생 3편(6.0%), 연구원 등 기타 2편(4.0%)으로 교수에 의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연구대상은 건강관리제공자에 대한 논문이 31편(62.0%)로 가장 많았고, 그 중 간호사가 26편(52.0%)이었다. 그 다음은 환자를 연구대상으로 한 논문이 13편(26.0%)이었고, 주돌봄자인 가족을 대상으로 한 논문이 9편(18.0%), 건강한 일반인은 1편

(2.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장소는 가정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 14편(28.0%), 가정간호사업소 13편(26.0%), 보건소 10편(20.0%), 의료복지시설 7편(14.0%), 방문보건센터와 병원이 각각 3편(6.0%)으로 나타났다.

논문의 윤리성은 IRB의 승인 여부로 분석하였다. IRB 승인을 받은 논문이 31편(62.0%), 서면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는 기술은 되어있었으나 IRB 승인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논문이 19편(38.0%)이었다. 국가연구재단이나 소속기관 등의 연구비 지원을 논문은 10편(20.0%)이었다. 학위논문을 일부 발췌하거나 수정하여 게재한 논문은 11편(22.0%)로 나타났다.

### 연구 및 자료분석방법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을 연구방법에 따라 분석한 결과는

〈Table 2〉 Trends in the Types of Research and Research Designs in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Home Health Care Nursing from 2010 to 2019 (N=50)

Variables	Categories	n (%)
Research type	Quantitative	48 (96.0)
	Qualitative	2 (4.0)
Research design (Quantitative, n=48)	Survey	39 (81.3)
	Experimental	4 (8.3)
	Methodological	1 (2.1)
	Secondary data analysis	3 (6.2)
	Others	1 (2.1)
	Research design (Qualitative, n=2)	Narrative inquiry
	Others	1 (50.0)
Data collection <sup>†</sup>	Self report questionnaire	43 (86.0)
	Physiological measurements	1 (2.0)
	Interview	2 (4.0)
	Medical records	4 (8.0)
	Delphi	1 (2.0)
	Literature review	1 (2.0)
	Data analysis <sup>†</sup>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26 (52.0)
$\chi^2$ test		13 (26.0)
ANOVA		22 (44.0)
Correlation		19 (38.0)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18 (94.7)
Spearman rank-order correlation		1 (5.3)
Regression		9 (18.0)
Multiple linear regression		4 (44.4)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2 (22.2)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2 (22.2)
Enter multiple regression		1 (11.2)
Factor analysis		2 (4.0)
Mann-Whitney test		2 (4.0)
Others		1 (2.0)

<sup>†</sup>Multiple responses.

Table 2와 같다. 연구유형은 양적 연구 48편(96.0%), 질적 연구 2편(4.0%)으로 대부분 양적 연구방법을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의 설계를 각각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양적 연구로 분류된 48편 중 조사연구 39편(81.3%), 실험연구 4편(8.3%), 이차 자료분석 연구 3편(6.2%), 방법론적 연구 1편(2.1%), 기타 종설(2.1%) 순으로 조사연구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질적 연구는 총 2편으로 내러티브 탐구 1편(50.0%), 사례연구의 기타방법 1편(50.0%)이었다.

자료수집은 설문지 형태의 수집방법을 이용한 연구가 43편(86.0%), 의무기록 활용 4편(8.0%), 면접 2편(4.0%), 생리적 측정, 델파이기법 및 문헌리뷰가 각각 1편(2.0%)순으로 자가 기입 설문지를 활용한 자료수집 방법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분석방법은 평균값, 표준편차, 빈도를 파악하여 기술적 통계를 분석방법으로 제시한 논문이 48편(96.0%), t-검정(t-test) 26편(52.0%), 분산분석(ANOVA) 22편(44.0%), 상관관계수(correlation) 19편(38.0%),  $\chi^2$ 검정( $\chi^2$ -test) 13편(26.0%), 회귀분석(regression) 9편(18.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논문의 주요어 분석

50편의 논문 한편 당 사용한 주요어는 평균 3.6개로 나타났고, 그 중 ‘가정간호’, ‘가정간호사업소’, ‘가정간호서비스’, ‘가정전문간호사’, ‘방문간호’, ‘방문간호사’, ‘요양시설’, ‘장기요양’, ‘재가간호’ 등의 주요어를 빈도수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3). 가장 많은 빈도수를 차지한 주요어는 ‘가정간호’로 22회(39.3%)로 나타났으며, ‘방문간호사’, ‘요양시설’이 각각 7회(12.5%), ‘가정간호서비스’ 6회(10.7%), ‘가정전문간호사’ 5회(8.9%), ‘가정간호사업소’, ‘장기요양’, ‘방문간호’ 각각 3회(5.4%)순으로 총 56개로 나타났다.

## 논 의

본 연구는 2010년부터 2019년까지 가정간호학회지에 게재되었던 논문을 전수 조사하여 그 중 가정간호분야를 주제로 한 연구를 선정, 연구동향을 분석하였다. 최근 10년간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편수는 총 206편으로 2000년에서 2009년까지 게재된 논문이 107편인 것을 고려해 볼 때 약 2배 정도로 증가하였으며, 등재지로 선정된 이후에는 연간 평균 29편의 논문이 게재되고 있어 지속적인 양적 성장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중 가정간호분야로 분류된 논문은 50편으로 게재 논문의 약 25% 정도였는데, 본 학회지의 연구 주제는 가정 및 방문간호, 방문건강관리사업 등과 관련된 실무, 교육, 정책 및 미래의 변화 등 다양하고 의미 있는 주제를 포함하고 있지만[12], 실제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을 분석한 결과 학회지의 특성이 반영된

(Table 3) Keywords Classification in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Home Health Care Nursing from 2010 to 2019<sup>†</sup> (N=50)

Keywords	n (%)
Home health nursing	22 (39.3)
Elderly care facility	7 (12.5)
Visiting nurse	7 (12.5)
Home care service	6 (10.7)
Home healthcare nurse	5 (8.9)
Home care agencies	3 (5.4)
Long-term care	3 (5.4)
Home care	3 (5.4)

<sup>†</sup>Multiple responses.

연구 주제의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불필요한 반복적인 연구를 피하고 본 학회지의 목적과 범위에 따른 논문의 게재 편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가정간호분야의 종설이나 사례연구와 같은 다양한 연구방법을 활용한 논문 게재를 유도하고, 실무에서의 우수관리사례가 연구로 연결될 수 있도록 가정간호학회의 연구비 지원은 물론 산학협력 체계 구축을 통하여 가정간호분야가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일반적 특성 중 연구의 제 1저자는 교수가 54.0%, 간호사가 32.0%, 대학원생이 10.0% 순으로 나타났는데, 노인간호학회지[11]에서는 제 1저자로 교수가 60.8%, 대학원생이 32.0%, 간호사가 3.9%, 중앙간호학회지[13]에서는 제 1저자로 대학원생이 63.7%, 간호사가 22.7%, 교수가 13.6%로 나타나 학회지 별로 주저자의 특성이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정간호학회지의 경우 대학원생의 논문보다는 간호사가 제 1저자인 논문 편수가 많아 가정간호분야에서의 실무가 연구로 이어지는 긍정적인 결과로 해석해 볼 수 있겠다. 하지만 타 학회지에 비해 대학원생의 논문 게재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볼 때, 가정전문간호사 과정에 입학한 대학원생들이 대학원 학기 진행 중 지도교수와 함께 연구를 진행이나 학술대회에 참석하여 논문 발표를 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운영 시 연구 참여에 대한 기회 제공 및 진행한 연구가 논문 게재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격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연구자의 수는 평균 2.5명으로 52.0%가 2명으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연구자의 수가 평균 8.8명인 임상간호연구[3]의 35%에 해당되는 수치이며, 가정간호학회지의 제 1저자 또는 교신저자 중 1인 이상이 교수인 것에서 기인된 결과로 볼 수 있다. 가정간호분야의 많은 연구가 실무와 연결되어 진행될 수 있음을 고려해 볼 때, 간호사와 교수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산학협력 연구의 활성화가 더욱 필요하며, 연구진행 시 간호사들이 공동연구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 제공해야 할 것이다.

연구대상으로는 건강관리제공자가 62.0%로 가장 많았고

52%가 간호사였는데, 임상간호연구[3]에서도 건강관리자가 가장 많았고 건강관리자 중 간호사를 연구대상으로 한 논문이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이는 2000년 이후 가정간호의 질, 재정과 정보, 서비스와 인적자원 관리에 대한 연구에 관심이 모아지면서 이러한 주제들이 핵심 연구주제로 다뤄짐[5,6]에 따라 주된 건강관리제공자인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결과에서 논문의 주요어는 ‘가정간호’ 다음으로 ‘가정전문간호사’와 ‘방문간호사’가 21.4%로 나타나, 가정간호 분야 연구에 있어 간호사는 주요 연구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장소의 경우 재가, 가정간호사업소, 보건소, 의료복지시설, 방문보건센터 및 병원 순으로 나타났지만, 특정 장소에 편중되지 않고 고르게 분포하고 있었다. 향후에도 가정간호분야의 연구가 다양한 장소에서 폭넓게 이루어진다면, 도출된 연구결과를 통해 새로운 지식체 개발과 연구영역을 확장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논문의 윤리성에 있어 IRB 승인을 받은 연구는 62.0%로 나타났다. 본 학회지의 경우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연구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연구 참여 중 일어날 수 있는 위해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이에 대한 서면동의서를 받았음을 명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IRB 심의는 통과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최근 연구의 윤리성 확보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면서 연구윤리가 점차로 강화되고 있는데, 이에 본 학회지도 연구출판윤리규정의 재정비 및 연구윤리위원회의 역할강화, 구체적인 자가점검사항을 통해 연구윤리에 대한 민감성을 높이고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도구사용 허락에 대한 보고는 아직까지 학회지 투고 시 원칙으로 규정에 제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많은 학회지에서 연구윤리 강화를 위한 방법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을 고려한다면, 본 학회지에서도 IRB 승인 의무화와 함께 도구사용에 대한 허락을 확인하고 기술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공지와 심사절차 강화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본 학회지에 게재된 대부분의 연구는 양적 연구가 96.0%로 대부분이었으며, 이 중 조사연구는 81.3%인 반면 실험연구는 8.3%로 실험연구의 비중이 33.0%인 임상간호연구[3]와 16.4%인 노인간호학회지[11]와 비교해 보았을 때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구의 주 대상자인 간호사의 경우 동일기관에서 근무하는 가정전문간호사와 방문간호사 수가 2명 이하인 기관이 많으며, 동일한 실험처치 및 중재가 이뤄져도 다양한 연구장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외생변수를 통제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실험연구보다는 조사연구가 많이 진행된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새로운 지식체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실험연구를 통해 간호중재의 인과성을 규명하는 것[14]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실험연구에서 제시된 다양한 간호중재를 분석하여 개발된 간호중재를 가정간호 대상자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는 실험연구의 확대가 필요하다. 연구방법에서 질적 연구의 경우 단 2편으로 연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질적 연구는 건강관리와 임상연구에서 제시되는 중요한 이슈와 현상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고[3], 양적 연구로 규명하기 어려운 간호현상을 밝혀 다양한 측면의 질적인 정보를 제공하므로[15] 학문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는 가정간호분야에서 보다 활발한 질적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질적 연구방법에 노출될 수 있도록 질적 연구의 경험이 많은 연구자를 통해 일정기간동안 특별기고형식으로 질적 연구 또는 관련 교육내용을 게재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자료수집방법에 있어서는 자가 기입 설문지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게재된 논문 대다수가 양적 연구이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향후 진행되는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 대부분이 간호사 및 환자와 가족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설문지를 통한 자료수집 외에도 다양한 임상지표들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많으므로 연구의 목적에 따른 임상지표들을 잘 선택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자료수집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주요어 분석에서 ‘가정간호’가 39.3%로 가장 많은 빈도수를 차지하였으며, 이 밖에 ‘방문간호사’, ‘요양시설’, ‘가정간호서비스’, ‘가정전문간호사’, ‘가정간호사업소’, ‘장기요양’, ‘방문간호’ 등이 본 학회지의 주요어로 각각 명확하게 구분되어 제시되었다. 하지만 영문 주요어는 ‘home care’, ‘home care nursing’, ‘home health care’, ‘home health nursing’ 등이 ‘가정간호’ 또는 ‘방문간호’로 혼용된 상태로 사용되고 있어 연구결과가 잘못 해석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주요어 작성 시 MeSH (Medical Subject Headings) term을 사용하여 명확한 용어를 일관되게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며, 국문 주요어와 일치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또한 연구자들은 주요어 작성 시 연구 개념이 충분히 반영된 주요어를 작성한다면 향후 가정간호분야의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는 연구자들이 주요어를 쉽게 찾을 수 있어 연구진행에 도움이 될 것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1993년부터 발행된 가정간호학회지의 동향분석을 처음으로 시도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모든 게재논문을 분석하기에는 그 양이 방대하여 어려움이 있었고, 최근 10년간 게재된 논문을 중심으로 본 학회지의 목적과 범위에 따라 분석하기에는 분석논문의 수가 제한적이었다. 또한 선행연구에서는 주요어 분석 외에도 메타파라다임[11], 이론적용[13], 텍스트네트워크 분석방법[16,17]을 이용하여 논문을 분석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가정간호학회지에 대한 동향분석을 처음 시도하는 측면에 초점을 두고 연구의 일반적 특성, 연구방법, 논문의 주요어를 중심으로 한 기본적인 분석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다양한 측면에서 논문을 분석하지 못하였다는 점이 본 연구

의 제한점이라 할 수 있다.

##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최근 10년간 가정간호학회에서 발간하는 가정간호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중 가정간호분야와 관련된 내용과 주요어를 사용한 논문 50편을 대상으로 일반적 특성과 주요어를 분석함으로써 연구 동향을 확인하고 가정간호학회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그 결과, 최근 10년간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편수는 연간 평균 29편으로 지속적인 양적 성장을 하고 있었으나, 가정간호분야와 관련된 논문은 전체 게재논문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부족함을 확인하였다. 가정간호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은 건강관리제공자 중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연구가 가장 많았으며, 주요어를 분석한 결과 '가정간호'가 가장 많은 주요어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가정간호학회지의 발전을 위해 보다 많은 연구의 양적, 질적 증가가 필요하다. 특히 가정간호분야와 관련된 연구 편수의 증가와 연구주제가 더욱 다양해져야 하며, 여러 연구방법과 통계분석방법이 활용된 연구가 증가되어야 한다.

둘째, 가정간호학회지의 연구방법은 대부분 조사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가정간호분야의 많은 연구가 실무와 연결되어 진행될 수 있음을 고려해 볼 때, 향후에는 간호 중재개발과 근거기반간호를 위한 실험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가정간호학회지에 게재된 가정간호분야 논문을 대상으로 내용분석 중심의 후속연구를 제언한다. 셋째, 연구결과와 폭넓은 공유를 위해 MeSH를 엄격히 준수하여 영문 주요어를 사용할 것과 국문 주요어와 일치시키는 것을 제언한다. 마지막으로 연구윤리성 확보를 위해서 IRB 승인 의무화, 학술지 심사와 편집절차를 더욱 체계화하고, 연구자에게 연구윤리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제언한다.

## Conflicts of Interest

The authors declared no conflict of interest.

## References

- Hwang MS, Lee SJ, Lim NY, Lee MK. Job descriptions of hospital based home care nurse practitioners in Korea by DACUM techniqu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Home Health Care Nursing*. 2011;18(1):48-57.
- Kang SY. Customized nursing care types and process: focusing on home care services. *Journal of Korean Nursing Administration Academic Society*. 2008;14(1):13-25.
- Kim YH, Jeong GH, Kwon IG, Kim KS, Moon SM, Lee JL, et al. Bibliographic analysis of articles published in journal of korean clinical nursing research from 2009 to 2015. *Journal of Korean Clinical Nursing Research*. 2017;23(1):73-82. <https://doi.org/10.22650/JKCNR.2017.23.1.73>
- Kim S, Kwon BE. Current situation and perspectives for home care nursing research in Korea.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Home Health Care Nursing*. 2000; 7(1):48-57.
- Ryu HS, Park CS, Kim IA, Kwon YD, Kang SW. Use of home nursing therapy and need of home care equipm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2008;19(2):157-166.
- Lim JY, Kim JY. Home care nursing: an economic analysi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Home Health Care Nursing*. 2013;20(1):141-151.
- Lee TW, Park KO, Seomun GA, Kim M, Hwang JI, Yu S, et al. Analysis of research articles published in th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for 3 Years (2013~2015): the application of text network analysis. *Journal of Korean Nursing Administration Academic Society*. 2017;23(1):101-110. <http://dx.doi.org/10.11111/jkana.2017.23.1.101>
- Sohng KY, Kim JI, Choi DW, Kim AK, Chaung SK, Kim K, et al. Research trends in th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 nursing: based on analysis of th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 nursing from 2001 to 2007.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 Nursing*. 2008;15(3):262-273.
- Kirekvold M. Integrative nursing research: an important strategy to further the development of nursing. *Science and Nursing Practice. Journal of Advanced Nursing*. 1997;25(4): 977-984.
- Kim JH, Yoo SB. An analysis of research studies published in th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JKPMHN) based on knowledge development classifications of nursing: publication articles from 2010 to 2014.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2016;25(1):21-27. <http://dx.doi.org/10.12934/jkpmhn.2016.25.1.21>
- Cha YR, Kwon JE, Kwon SH, Lee KH, An JY. Trend analysis of research in the journal of korean gerontological nursing (2010~2015). *Journal of Korean Gerontological Nursing*. 2017;19(2):92-100. <https://doi.org/10.17079/jkgn.2017.19.2.92>
- Korean Academic Society of Home Health Care Nursing [Internet]. Seoul; 1993 [cited 2020 August 11]. Available from: <http://www.kahhn.or.kr/sub/subMain.jsp?menuseq=2010>
- Lee HY, Kim MK, Seo WJ, Lee MJ, Heo YR, Kim SH. Trend analysis of theory-based research published in asian oncology nursing. *Asian Oncology Nursing*. 2019;19(1):1-8. <http://doi.org/10.5388/aon.2019.19.1.1>
- Lee EO, Lim NY, Park HA, Lee IS, Kim JI, Bae JY, et al. Nursing research and statistical analysis. Paju: Soomoonsa; 2009. 790 p.
- Kim WS. Current research trends in hospice-related domestic

- nursing research theses (1988~2017). Korean Journal of Palliative Care. 2019;22(1):19-29. <https://doi.org/10.14475/kjhpc.2019.22.1.19>
16. Kim MJ, Jeon JH, Ryu EJ. Text network analysis of oncology nursing studies published in the journal of asian oncology nursing. Asian Oncology Nursing. 2019;19(4):193-203. <https://doi.org/10.5388/aon.2019.19.4.193>
17. Kim, YH, Moon SM, Kwon IG, Kim KS, Jeong GH, Shin ES, et al. Research trends of articles published in the journal of Korean clinical nursing research from 2000 to 2017: text network analysis of keywords. Journal of Korean Clinical Nursing Research. 2019;25(1):80-90. <https://doi.org/10.22650/JKCNR.2019.25.1.80>



# Research Trends in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Home Health Care Nursing from 2010 to 2019: Using the Keyword Home Health Care

Jun, Eun-Young<sup>1)</sup> · Noh, Jun Hee<sup>2)</sup>

1)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Daejeon University, Daejeon

2) Associate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Woosuk University, Wanju, Korea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research trends, using the keyword home health care, in articles published in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Home Health Care Nursing over the past 10 years. **Methods:** An analysis was conducted of 50 home health care-based studies chosen from among the 206 studies published in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Home Health Care Nursing from 2010 to 2019. The analysis focused on research methodology and keyword. Descriptive statistics were used to examine the frequency distribution of research methods and keywords. **Results:** Study participation was mainly focused on nurses (52.0%). Most of the studies used quantitative methods (96.0%), and 43 studies (86.0%) used self-report structured questionnaires. The most commonly used data analyses methods were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alysis of variance, correlation, and regression. Major keywords were home health nursing, elderly care facility, visiting nurse, home care service, home healthcare nurse, home care agencies, long-term care, and home care.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dentified current trends and interests in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Home Health Care Nursing. This study suggests that future studies include a variety of research methods and maintain appropriate standards of research ethics.

**Keywords:** Home health care; Nursing research; Trends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Noh, Jun Hee

College of Nursing, Woosuk University

443, Samnye-ro, Samnye-eup, Wanju-gun, Jeollabuk-do, Republic of Korea

Tel: 82-63-290-1950, Fax: 82-63-290-1548, E-mail: junhee0802@woosuk.ac.kr